

## 감사지수를 높이십시오 *Increase Your Thankful Quotient* 에베소서(Ephesians) 5:20-21

오늘은 일 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Today is our annual celebration of Thanksgiving Sunday. It is important for us to periodically review how thankful we are. So this Thanksgiving Sunday is a very important time of the year.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a high thankful quotient, than nothing could be better. However, if you have a low thankful quotient, than you probably don't have a healthy soul and are not very happy.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Today's scripture speaks to us in a very strong way.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t this point, two words weigh heavy in our mind. What are they? I believe they are "everything" and "always". That is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what these words intend.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Let's look at the two words. First, "everything" means that we should thank God no matter what our circumstances are or no matter what is happening in our life. Second, "always" means that we should thank God all the time without ceasing or changing.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 받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After reading these meaningful words, all of us feel the pains of guilt. I, as a pastor, probably feel even guiltier than everyone else. That's because I too am not always thanking God.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In 1988, there was a very hot issu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whether or not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Massachusetts governor, Michael Dukakis, running for President, argued for the abolishment of capital punishment. He took his stump all around the nation saying "End capital punishment."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 하신다죠?"

One day, he was in an interview on CNN. CNN's Bernard Shaw was the anchor of the show. Michael Dukakis was famously asked by CNN's Bernard Shaw. "I hear that you are arguing about the abolishment of capital punishment."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That is right." "That is great, but I have one question for you.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If your wife, Kitty Dukakis, were raped and murdered, would you favor an irrevocable death penalty for the killer?"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이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He was surprised because it was a much unexpected question. He stammered over a few words. How difficult do you think it was for the viewers to get a "feeling fix" on Dukakis?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 아니라는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Many thought that he really didn't want to stop capital punishment because of his response during the interview. Dukakis' passionless response was the headline that came out of the interview.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It is very easy to tell others what they should do. However, sometimes we don't apply what we say to our own lives. It is easy to say, "Thank God for everything." We can even shout, "Thank God always."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 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 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What I want to say is that it is not easy to accept my word as God's Word. Do you think that a husband can thank God when his young wife is dying from cancer? Do you think that you can really thank God when your prayer requests for your illness are not working but rather the illness is getting worse?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We should recognize two facts in today's scripture. First, today's scripture says,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y should we thank God for everything? It is because of Jesus Christ.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We can change the words "in the name of" to "because of" and it would make more sense to us. We are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because of our Lord Jesus Christ. It means that as the children of God we can thank Him for everything and be thankful always for the sole reason of Jesus Christ.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Second, our father in heaven ordered us to thank God always for everything.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came to earth to save us from our sin because He loves us very much. He died on the cross for us.

하나님께서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생함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God had him rise from the dead in three days. He said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be saved and have eternal life. We are living with Jesus Christ in our hearts. Everything is possible for Jesus.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Jesus is the one who loves us so very much. Then, shouldn't we give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because of our Jesus Christ? Don't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if for nothing else, that Jesus is with us, even if we don't have any pleasures in our body?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 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사람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If you have a higher thankful quotient, nothing can better. If you have a higher thankful quotient, our faith will become better. If you have a higher thankful quotient, we will become happier. If you have a higher thankful quotient, we can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If you have a higher thankful quotient, we can become stronger.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Therefore, from today, when you leave here, I want you to be diligent in giving thanks to God. Let's think like this, "I am a good Christian. I can give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because of Jesus Christ our LORD." If you do that – be thankful for all the things that you complain about, be thankful instead of blaming someone, be thankful about all the things that give you dissatisfaction – then God will give you blessings that are overflowing.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 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매력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I want to keep telling you over and over to give thanks to God in any circumstances, any condition. If you do so, your faith quotient will be increased. If you do so, your happiness quotient will be increased. If you do so, we can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God wants all of us to become beautiful children of His.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I will read today's scripture again.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